

국제역학회와 NIOSH를 방문하고.....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산업의학과
이 강 숙

Society for Epidemiologic Research annual meeting에 참가하기 위해 11일 저녁 구정완 선생님과 비행기에 올랐다. 포스터 발표라 그다지 큰 스트레스는 없었지만 그 동안의 과로와 건강이 좋지않아 마음이 무거웠다. 비행기 몇번을 갈아 타고 캐나다 알버타의 에드몬턴에 도착하니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어스름 어둠이 내려앉아 백야 현상인가하여 신비로웠다. 그곳에서 구연을 위해 온 한림대 김동현 선생님과 여행차 지나치던 한일병원의 조정진 선생님, 삼성병원의 신명희 선생님을 반갑게 만났다. 500여명이 참석하는 큰 학회로써 아침 일찍부터 하루종일 몇 백개의 연제가 발표되었으며 중앙부에서는 서양인에서 흔한 유방암, 대장암, 전립선암에 관한 것이며 여성건강에 있어서 골다공증 및 호르몬 치료와 그 부작용 등, 순환기 질환으로 고혈압, 고지혈증 등이 주요 테마를 이루어 아주 흥미로웠다. 그외에도 occupational epidemiology, molecular epidemiology 등이 있었으며 이곳에서 한국인으로는 NIOSH의 Dr. Bang Ki Moon, CDC의 Dr. Steven Yoon을 만났다. 첫날은 짧은 영어로나마 두 선생님이 발표를 끝냈다는 기쁨으로 흥가분해했고,

둘째날은 맹광호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신 그곳의 교포 원 선생님을 만나 한국 음식으로 저녁을 맛있게 먹고 캐나다의 젊은이들이 어떻게 금요일 저녁을 즐기는지 몇군데 디스코 클럽을 구경하며 즐겼다. 다음날 새벽 우리는 아름다운 캐나다 로키를 구경도 못한채 아쉬움을 남기며 각자의 일정으로 헤어졌다.

그 다음 일정은 우리 교실의 노영만 선생님의 배려로 신시네티의 NIOSH를 방문하는 것인데 주말이 걸려 폐도 덜 끼칠 겸 주말을 시카고에서 보냈다. 마침 우리 학교 후배가 유서깊은 시카고 대학에서 gene therapy를 공부하고 있었으며 cell culture 하는 동안 미시간 호가 내려다 보이는 아파트에서 이야기 보따리를 풀며 토요일 밤을 지새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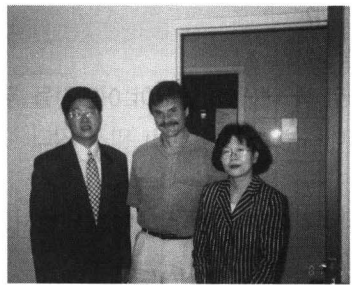
NIOSH에서 노영만 선생님과 함께

NIOSH에서는 미리 이력서를 보내어 노영만 선생님의 안내로 국가기관을 공식방문하는 절차를 밟아 각 분야마다 책임자가 나와 설명을 하고 토의할 시간을 가지는 좋은 대접을 받았다. 처음에 직업과 관련된 질병이름이 경쾌한 음악으로 나오며 NIOSH를 소개하는 비디오에서 director로서 Linda Rosenstock이 나와 설명을 하는데 교육용 슬라이드를 만들기 위해 사진을 찍었더니 즉시 컴퓨터로 뽑아주었다. 주로 하고 있는 일들은 Stress management, sick building syndrome, hearing conservation program, VDT, EMF 등이었으며 마지막에는 NIOSH에서 발간되는 모든 간행물을 원하는대로 가져가게하여 많은 정보를 얻었다. 저녁에는 이곳에서 일하고 계시는 강성규 선생님, 이은일 선생님 그리고 노동부에서 오신 송국장님, 인제대학의 이진현 선생님 가족들과 역수같이 퍼붓는 빗속의 공원에서 고기를 구워 먹으며 환영 및 송별인사를 하였다. 인생이란 만나고 또 헤어지고... 다시 또 기쁘게 만날 수 있기를...

다음날은 신시네티 대학의 산업의학과 호흡기 전공 교수인 Dr. Lockey를 만났다. 연세대 노재훈교수님께서 미리 전화를 해주시어 하루 종일 환자를 보아야하는 바쁜 일정에도 시간을 내어 아침 일찍 우리를 만나주어 이곳에서의 산업의학과 수련의 과정 및 앞으로의 전망 등을 이야기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산업의학 전공의 과정이 시작단계이므로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어

아주 좋은 시간이었다. 다음은 DNA adduct로 Biomonitoring하는 Dr. Talaska를 만나 그의 연구와 최근 논문들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오후에 대학 서점에 들러 기념품을 사고 Dr. LaDou의 Occupational Medicine 제 2판이 나왔는지 확인하니 7월에 나온다고 한다. 또하나 신시네티를 잊을 수 없는 것은 역수같은 비와 천둥번개다. 떠나오는날 아침에 쏟아지는 비때문에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고 밀려 비행시간에 늦어서 정말 정신없이 땀 생각을 하면 아직도 손이 떨린다.

바쁜 와중에도 이렇게 좋은 학회 참석과 NIOSH방문을 허락하여 주신 교실 교수님들께 그리고 우리의 빈자리를 열과 성으로 메워준 임현우 선생님, 박영만 선생님에게 더없이 큰 감사를 보낸다.



Cincinnati 대학의 Dr. Lockey(↖), Dr. Talaska(↗)와 함께